

# 2012년 고용노동부 핵심과제 추진계획(요약)

\* 밑줄 친 것은 12년 신규사업임

## 1.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

### ①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

● (채용전) 현장에 강한 인력 양성

- 특성화고-강소기업 채용약정 훈련, 고졸인턴 확대(1.2→2만명), 고등학교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보급, 교원 현장연수(12.8, 고용·교과·지경부 MOU)

● (채용시) 학교·기업·고용센터 연계,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

\* 구인·구직 발굴 → MOU 체결(학교, 기업, 고용센터) → 취업서비스 제공(훈련, 인턴, 채용설명회 등) → 사후관리(취업 확인, 지원금 등)  
\* 12.8 기준 구인 6,305명, 구직 8,489명 / 775개소 MOU 체결 / 1,766명 취업

● (채용후) 고졸청년은 4년 앞서 취업, 일하면서 배우고 승진하기

- (입사) 중소기업 신입직원 기업적응훈련(폴리텍대) + (재직) '훈련의 학점 인정 \*' + '중소기업 계약학과, 폴리텍대 야간과정 학비 지원'
- 고졸 기술직·관리직 등 임금·승진 차별없는 열린 고용 리더 발굴·청년층 체감고용 개선

### ② 청년층 체감 고용 개선

\* 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확대('11년 1.6 → '12년 2조원, 직접일자리, 창업·창직, 훈련 등)

● (청년 일자리 창출) '12년까지 71,000\*개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

\* 문화·관광 분야, 취업인턴(3.2 → 4만명), 청년전용 창업 자금(2천억원, 신설) 등  
\* 공공기관 신규수요 추가 채용(1 → 1.4만명),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63백억원)

● (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) '학벌, 스펙쌓기 ⇒ 실력, 실무 중심 채용관행 확산\*', 취업아카데미(8천명) 및 창조캠퍼스 확대(10개 → 20개대) 뿌리산업·신성장동력 등 실전형 인재 양성(10만명)

\*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·보급, 학력 기재 최소화 등 권고(공공부문 우선)

- (미스매치 줄이기)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(40개),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(230 → 280명),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(인터넷+스마트폰)생애 첫 취업 청년 재산형성 지원
- (세대간 함께 일하기) 고속런 고령자의 기술·경험을 청년에게 전수\*,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\*\*

\*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, 산업현장 교수 Pool제 등 \*\* 어르신·청년창업 등

## 2.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

- ▶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에 종합 처방 ⇒ 생산성 제고, 일자리 창출—근로생활의 질 향상 선순환
- ▶ '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' 운영, 대표기업 연속 현장 방문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및 협력업체로 확산활력 있는 일터

### 1 활력 있는 일터

- (근로시간, 임금 개편) 근로시간제도 합리화\*, 교대제 개편 지원 확대\*\*(주야 2교대→주간 연속2교대, 3조 2교대 등), 직무·성과급 확산

\*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,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,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

\*\* 교대제 개편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 : <지원수준> 연 720 → 최대1,080만원 <지원기간> 1년 → 최대 2년

- (반듯한 시간제 일자리) 의료·보육·문화 등 적합업종 집중 지원, 공공부문 적합 업무 발굴 및 도입실적 경영평가 반영
- (일·가정 양립) 모성보호 휴가 확대\*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급여지원 및 청구권 부여,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\*\*



\* 배우자출산휴가(무급 3일→유급 3일+무급 2일), 가족돌봄휴직제 도입(90일)  
 \*\*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형 신규 지원(24억원) / '중소기업 단독' 및 대·중소기업 공동형 지원수준 상향  
 <인건비> 80→100만원, <운영비 상한> 480→520만원

## 2 든든한 일터

- (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)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\*,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\*\*, 무급 휴직자 생계비 및 고용유지 사업주 지원\*\*\*

\* 소규모 사업장, 최저임금 120% 이하 근로자, 고용보험·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1/3 지원(3월 시범사업, 10월 본사업)  
 \*\* 임의가입 /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,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·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
 \*\*\* <무급휴직자 생계비> 평균임금 50%이내 수준, 6개월간 생계비 지원 / <고용유지 사업주> 교육훈련·순환휴직 등 소요비용 지원

- (배우고 다시 일하기)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\*,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\*\*, 다솜(다문화)·취업사관학교(위기청소년) 운영

\*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 근로자 /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 
 \*\* <참여자> 5→7만명(기초수급자 0.8→3만명), <자립지원상담사> 48→100명, <성과관리> 취업 후 근속·임금 평가 후 차등지원

- (베이비부머 오래 일하기) 자율적 고용연장(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\* 등), 점진적 퇴직 활성화(시간제근로 전환, 퇴직연금 활성화\*\* 등), 중소·사회적 기업 전직(50+새일터 현장연수, 2천명 등), 사회공헌형 일자리(유급근로+자원봉사)

\* 중소기업 임금 감액요건 완화(20% → 10%), 지원제한 소득 하향(현재 68백만원)  
 \*\*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면서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전직연계형퇴직연금 설계

- (장애인 함께 일하기) 의무고용률 상향\*,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\*\*,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범 도입\*\*\*, '先배치·현장훈련-後채용' 지원(5천명)

\* 민간·기타공공기관: 2.3→2.5%

\*\* 30대 기업집단 1그룹 1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/ 공공기관 우선구매

\*\*\* '고용부-교과부-기업체' 협력으로 시행

### 3.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

#### ①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 확산

- (정규직 노사 나눔)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적극 개선 및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,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평가 및 인증, 지역·업종별 실천모델 발굴, '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' 마련('12.상)
- (대·중소기업 공생) 주요 업종별 대·중소기업 공동훈련 모델 확대\*, 대기업·협력업체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\*\*,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수혜,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·기숙사 지원

\* 협력사 뿐만 아니라 비협력사까지 훈련 제공시 지원수준 상향, 성과평가 반영, 신성장동력 분야 특성화 훈련 컨소시엄 육성(바이오, 문화컨텐츠 등)

\*\* \* 대기업의 협력업체 산재예방 의무 확대(건설·제조업 → 전업종, 유해위험정보 제공)

- (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) 1사1사회적기업 확산, 민간 주도 중앙·지역별 협의체 구성(NGO, 종교계 등), 온라인몰·공동판매장 신설, 상시 특별보증·투자펀드 확대(400억),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(환경, 복지, 문화 등)

#### ② 내일로 나아가는 노사관계

- (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 뿌리내리기) 전임자급여 편법지원·부당노동행위·교섭장구단 일화 관련 법 위반 근절, 합리적 교섭 질서·공정한 단체협약 등 선진적 노사문화 확산

\* 임·단협 동시 교섭, 1~2년 임금협약 모델 등 생산적 교섭 유도·촉진



- (모범이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) 비정규직 고용관행 합리화\* · 고졸 채용 등 선도적 역할 강화, 노사관계 분석 · 진단 및 위법 · 불합리한 관행 개선 지도 · 컨설팅

\*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분석 ·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화,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' 제정 등

- (예방적 갈등 관리) 사내하도급 · 구조조정 등 전담 TF 운영 및 권역별 교섭협력관 운영,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 견지 ☺